

DASI

문학잡지 다정한시간



- 004 머리글 | 다정한시간의 두 번째 발자국

— 청춘 Voice

- 006 나에게 보내는 응원의 한 줄

— 같은문장, 다른이야기

- 011 송동훈 외 3인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 031 이건희 외 2인

[가만히 생각해 보니, 처음 겪어보는 일은 아니었다]

— 에세이

- 041 조호근 [너에 대한 이야기 외 1]

- 046 박소정 [낭만에 대하여]

- 048 윤가은 [어른이]

- 050 박시은 [택시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처음 겪어보는 일은 아니었다

오늘

이건희

가만히 생각해 보니, 처음 겪어보는 일은 아니었다. 아침에 햇살이 창가에 비치고, 시간이 지나면 하늘에 별들이 깨어나듯이 신경 쓰지 않더라도 일어나는 일이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것을 ‘오늘’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나의 오늘은 다른 것이었다. 매일은 시곗바늘과 같이 돌고 다시금 돌아 반복되지만, 그럼에도 나의 오늘은 다른 것이었다. 처음 겪어보는 일이 분명히 아니었지만, 분명히 다른 느낌이었다. 이 감정과 느낌을 정의할 수가 없었다.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처럼 무방비한 나에게 쏟아지는 이것들을 받아내며, 온몸이 전율할 뿐이었다. 오늘은 그런 날이었다.

새로운 것은 없었다. 일은 예전과 같았고, 만나는 사람도 비슷했다. 달라진 것은 오직 내 마음 하나일 뿐인데 오늘은 어제와 완전히 달라졌다. '아' 외마디 탄식이 터져 나온다. 오늘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오직 나뿐이었다. 그 사실에 나는 다시금 내 몸은 산뜻한 봄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랑살랑 흔들린다.


엔딩크레딧

편집/기획 박시은, 지영복

공통저자 박시은, 지영복, 송동훈, 김나현, 김숙경, 조호근, 이건희, 윤가은, 박소정

삽화 박채연

검수 김윤주, 신지혜, 서지윤

도움주신 곳  대진침년내일센터

발행일 2024년 10월 9일

발행처 글정

등록번호 제 2023-0000-11호

ISSN 2983-3027

값 무료

출판사 <글정>과 문학커뮤니티 <다시> 소식을 더 듣고 싶다면?

